



경준해 길림성관광발전대회서 강조

관광업 고품질 발전의 아름다운 미래 힘써 개척하여 길림 전면 진흥 솔선 돌파 위해 동력에너지 주입해야

호옥정 주재

6월 14일, 길림성관광발전대회가 장백산보호개발구에서 소집되었다. 성당위 서기 경준해가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유네스코 동아시아지역 판사처 주임 하택한과 함께 장백산세계지질공원을 위해 동력에너지를 주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전국관광발전대회의 포치 요구를 참답게 시달하며 수정혁신, 품질제고, 효익증대, 융합발전을 견지하고 민역군 대관광산업집단을 힘써 구축하고 같이 강조했다. 관광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전국관광발전대회의 포치 요구를 참답게 시달하며 수정혁신, 품질제고, 효익증대, 융합발전을 견지하고 민역군 대관광산업집단을 힘써 구축하고 같이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길림성 관광특집 영화를 방영했다. 문화관광부 당초 성원이며 고국박물원 원장인 왕옥동, 중국 기상국 당초 성원이며 부국장인 장조강, 중국관광협회 부회장 겸 비서장인 장운강이 축사를 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서기인 호가복,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장춘시당위 서기인 장은혜 및 성문화관광청, 장백산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교류발언을 했다.

경준해는 우선 성당위와 성정부를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표하고 나서 길림의 진흥 발전을 관심하고 지지하는 국내외 각계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관광업은 날로 신흥 전략적 기동산업과 뚜렷한 시대적 특징을 가진 민생산업, 행복산업으로 되고 있다.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고 조류를 파악하여 길림 관광업의 고품질 발전 '10대 비전'을 전면적으로 그려야 한다. 생태보호와 생태관광 발전의 상호보완을 견지하고 관광강성을 고수준으로 건설하며 습근평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실천하는 길림의 사명과 비전을 그려야 한다. 현대관광업 체계를

함께 보완하고 민역군 목표를 향해 확고히 분진하여 대관광이 길림의 전면적인 진흥에 조력하는 발전 비전을 그려야 한다. 첨단과학기술, 고효율 에너지, 고품질 특징을 파악하여 혁신 성과를 관광 발전의 전 과정에 융합시키고 관광의 신질생산력을 육성하고 장대시키는 혁신 비전을 그려야 한다. 브랜드 에너지 집결 계획을 깊이 실시하여 '1산 2호 3강 4계절'의 관광 IP 행렬을 만들어 장백산을 대표로 하는 관광 IP 비전을 그려야 한다. 길림의 명예도와 흡인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여 아름다운 길림의 인기가 지속되는 번영 비전을 그려야 한다. 행복한 생활에 대한 인민대중의 아름다운 기대를 확실하게 만족시키고 관광이 고품질 생활에 에너지를 부여하는 행복 비전을 그려야 한다. 관광산업 발전의 전반 사슬과 전반 요소를 단단히 틀어쥐고 기반시설을 한층 더 보완하고 기준인도를 제고하며 관광 상품을 풍부하고 이미지와 실속을 골고루 갖춘 특색이 선명한 품질 비전을 그려야 한다. 문화로 관광을 빛내주고 관광으로 문화를 나타내며 문화와 관광이 깊이 융합된 경영방식의 비전을 그려야 한다. 전 성이 련동되고 기능을 상호 보완하며 조화롭게 발전하는 대관광 공간구도를 구축하고 지역 구도(区域板块)의 아름다운 공간 비전을 그려야 한다. 개방된 안목과 사유와 시야로 관광업의 '나아가기', '청해오기'를 추진하여 내외 련동의 이중방향 개방 비전을 그려야 한다.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길림 관광업의 고품질 발전을 안정적으로 오래도록 추진하려면 반드시 중점에 초점을 맞추고 정확하게 힘을 발휘하며 난관돌파를 해야 한다. 첫째, 전역계획을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동시 관광의 '이중 환선'을 강화하며 G331 변경(沿边) 개방관광대통로 건설 '10대 행동'을 실시하고 도시와 농촌의 관광 융합발전을 추진하며 전역관광 시범 건설을 잘하고 관광산업의 새로운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전 계열 운영을 두드러지게 하고

여름철 피서 열기를 높이며 겨울철 빙설 브랜드를 빛나게 하고 봄철과 가을철의 관광 잠재력을 깊이 파고들어 '겨울과 여름을 련동하고 봄과 가을을 이끔' 전년을 구동하고 사계절 모두 특색이 있는 관광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전천후 구동(全时驱动)을 두드러지게 내세우며 시기에 맞고 당지 실정에 맞게 전천후 소비 정경(场景)을 알선하며 개발하여 관광시간대의 새로운 연소점(新燃点)을 지속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넷째, 전 요소 실력 발휘를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특색있는 음식을 맛보고 편안하게 류숙하며 막힘없는 교통시설을 체험하고 눈과 마음이 즐겁게 련행하며 질 좋은 물건을 구매하고 즐겁게 놀도록 하여 관광 품질의 새로운 합의를 더욱 잘 과시해야 한다. 다섯째, 전 경영방식의 융합을 두드러지게 하고 '관광 + 문화, + 생태, + 강양, + 농업, + 공업, + 상업, + 체육, + 회의전시' 등 문장을 착실하게 지어내고 관광산업의 새로운 생태를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전반 사슬의 버팀목을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다원 경영주체를 육성하며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을 강화하고 관광서비스 수준을 전방위적으로 향상하며 관광 변경의 새로운 경로를 한층 더 넓혀야 한다.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전 성 각지와 각 부문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확실하게 증강하고 전 성의 '시달을 단단히 틀어쥐는 해' 및 '기층 부담 경감의 해' 배치와 결부하여 조직지도를 한층 더 잘 틀어쥐고 계획인도를 강화하며 개혁혁신을 심화하고 인재의 버팀목을 구축하며 선전보급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5화' 폐환사업법을 잘 리용하여 관광강성 건설의 제반 조치를 확실하게 시달시켜야 한다.

호옥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길림 문화관광의 발전 태세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무시키며 관광강성 건설의 미래는 기대할 만하다. 우리는 "생태보호와 생태관광 발전이 서로 잘 어울리게 해야 한다."는 습근평 총서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용감하게 새시대 문

화관광산업 발전의 조류를 타고 관광강성의 목표와 전략 비전에 초점을 맞추어 민역군 관광산업 난관돌파 행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세계적인 방설관광목적지와 현대화 전 계열 전역 관광목적지를 고품질로 건설해야 한다. 길림 문화관광은 한창 세계를 향해 '길상 데이트(吉祥之约)'를 청하여 광범한 관광기업, 기업가, 전문가, 각계인사들이 길림의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길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흥업하고 창업하여 발전하며 관광하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경영환경과 소비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여러분과 함께 문화관광산업의 '큰 계약'을 강하게 하며 관광 자연자원의 큰 잠재력을 방출하고 문화관광 융합의 큰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원 우세를 발전 우세로 서둘러 전환시킴으로써 길림 문화관광산업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해나갈 것이다.

6월 13일 저녁, 경준해와 호옥정은 회의에 참석한 중요 귀빈 대표들을 회견하고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과 함께 대형 실내 물입식 문화관광 공연〈분설전설〉 첫 쇼와 중국 장백산 사진, 서예, 미술 대전을 관람했다. 회의 개최에 맞추어 우리 성은 동시에 '여름 교환-길림과 16개 성, 자치구, 직할시 련동 주제문화관광산전판 매행사', 장백산세계지질공원지속가능 발전회의, 중국·길림 변경마라톤 시리즈 등 13개 주제 행사를 조직했다.

회의는 화상형식으로 열렸다. 길림성 지도자들과 리위와 조로보, 안휘성 부성장 손용, 상무부와 문화관광부, 중국기상국, 국가기업총원국 관련 사, 국의 책임 동지와 흥룡강성, 료녕성, 섬서성, 안휘성 관련 부문과 기업단위의 책임 동지, 길림성 관련 부문, 중점기업과 각 시(주), 장백산보호개발구, 각 현(시, 구)의 책임 동지와 프랑스, 일본의 중국 주제 외교사절, 향항특별행정정부 료녕성 주재 연락처, 국내 관광조직 및 유명 관광기업, 투자유자기업 대표, 관련 전문가 학자와 언론사 대표들이 각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했다. / 길림일보

길림성 보통대학입시 지원서 작성 26일부터

길림성 2024년 보통대학입시 지원서 6월 26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지원서 작성은 인터넷 지원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수험생은 본인의 대학입시 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길림성 보통대학입시 수험생봉사 플랫폼'에 접속해 규정된 시간내에 인터넷에서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인터넷 지원 사이트 주소는 <https://gk.jlcea.com.cn>이다.

구체적인 지원서 작성 시간은 다음과 같다. 모의 지원서 작성 시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1일(9:00-16:00)까지이다. 모의 지원서 작성은 수험생이 지원서 작성 시스템과 지원서 작성 절차를 숙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식 대학입시 지원서 작성과는 무관하다. 정식 지원서 작성은 총 3개 단계로 나뉜다. 각 단계의 지원서 작성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제 1 단계 : 우선모집단계 (提前批次)

이 시간대의 지원서 작성 시간은 6월 26일부터 6월 27일(9:00-16:00)까지이고 이 단계에는 사전에 학생을 모집하는 일반류, 예술류 대학 및 전공조합, 사범, 정강양성군 사생 등 면접, 신체검사 요구가 있는 전문대학 및 전공조합에 지원이 가능하다.

◎ 제 2 단계 : 본과단계
이 시간대의 지원서 작성 시간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9:00-16:00)까지이고 이 단계에는 본과 차원의 각 류(일반류, 예술류, 체육류) 대학 및 전공조합에 지원이 가능하다.

◎ 제 3 단계 : 전문대학단계
8월 1일부터 8월 2일(9:00-16:00)까지이고 이 단계에는 전문대학차원의 각 류(일반류, 예술류, 체육류) 대학 및 전공조합에 지원이 가능하다.

매 대학의 전공조합에는 6개의 전공지원 선택항과 전공조정 복종 여부 선택항을 설치했다. 길림성의 대학입시는 응시과목의 유형에 따라 일반류, 예술류, 체육류로 나누는데 일반류는 우선모집 A, B 두 단계에 각기 1개의 대학 전공조합 지원을 설치하고 본과단계와 전문대학단계에는 각기 40개의 대학 전공조합 평형지원을 설치했으며 예술류는 우선모집단계에 1개의 대학 전공조합 지원을, 본과단계와 전문대학단계에는 각기 20개의 대학 전공조합 평형지원을 설치했으며 체육류는 본과단계와 전문대학단계에 각기 20개의 대학 전공조합 평형지원을 설치했다. / 경원기자

장백산 ≡북경, 장백산 ≡상해 항로 추가



2024년 여름 운송 기간이 다가오면서 길림지역 항공시장의 수요와 결합하여 남방항공은 항로망 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길림시장에 41대의 항공수송능력을 투입하게 되는데 매일 입출항하는 항공편수는 거의 116편으로 승객의 출항에 더욱 많은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료해에 따르면 남방항공은 장춘에서 출항하는 도시가 25개에 달하고 장춘에서 광주, 북경, 상해까지 매일 6편의 직항편이 있으며 모두 시간 분포가 합리적이다. 장춘에서 심수, 무한, 청도까지 매일 4편, 장춘에서 장사, 중경, 남경까지 매일 3편이며 장춘에서 항주, 성도, 서안, 우룸치까지는 매일 2편으로 성내 인민의 여름 출행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다.

여름 운송 기간 남방항공은 길림지

역에 관광 및 피서 항로를 계속 구축하고 장백산-북경, 장백산-상해 항로를 추가했는데 북경, 상해, 광주, 대련에서 장백산관광지로 직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비행시간은 다음과 같다.

6월 21일부터 장백산-북경 왕복 항공편이 하루 1회 추가된다. 출발 항공편은 CZ8884, 21:50에 장백산공항에서 출발하여 다음날 00:05에 북경대흥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돌아오는 항공편은 CZ8883, 18:55에 북경대흥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21:05에 장백산공항에 도착한다.

7월 1일부터 장백산-상해 왕복 항공편이 1일 1회 추가된다. 출발 항공편은 CZ5940, 20:25에 장백산공항에서 출발, 23:15에 상해포동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돌아오는 항공편은 CZ5939, 16:45에 상해포동국제공항에서 출발, 19:40에 장백산공항에 도착한다.

구체적인 항공편 배치 및 티켓 판매 상황은 중국남방항공 홈페이지(<http://www.csair.com>), 남방항공 APP, 중국남방항공 위챗 미니응용프로그램에 접속하거나 남방항공고객센터 전화 95539로 문의할 수 있다. / 인민넷-조문판

2024 길림시마라톤대회 출발 신호탄 울려

16일, 만중이 주목하는 2024 길림시마라톤대회가 길림시 인민광장에서 시작했다. 3만명의 참가자들이 꿈을 쫓아 송화강변의 가장 아름다운 경주로를 달렸다.

7시 30분, 시작을 알리는 총소리와 함께 올림픽 챔피언 왕준하와 리견유를 선두자로 마라톤 참가자들은 관광명승지인 길림시 복산공원 옆의 인민광장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록음이 우거진 송화강변을 따라 모양이 각이한, 남북을 서로 이어놓는 여러 다리를 건너고 련속 이어지는 특색이 뚜렷한 도시 경관 속에서 속도를 내며 굽이굽이 흐르는 강과 한여름의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길림시의 유구한 력사와 발전 동맥을 만끽했다.

주회장과 경주로 연선에 도합 17개 공인 지점과 17개 응원 지점을 설치하고 약 2,500명의 군중들이 운동종목 전시공원과 동북특색종목 공연에 참여하여 세계에 아름다운 강성 길림시의 매력을 전달하고 팔방에서 찾아



온 열정적인 손님을 맞이했다. 이번 '길림시마라톤'은 길림시정부와 길림성체육국에서 주최하고 길림시체육국과 길림시체육총회에서 주관했으며 중국육상협회가 기술인증을 제공했다. 지난 5회의 환송화강 로연을 계속 사용하고 풀코스마라톤(42.195킬로미터), 하프마라톤(21.0975킬로메

터), 미니달리기(5킬로미터) 등 3개 경기 종목을 설치했다. '길림시마라톤'은 2016년 창립된 이후 지금까지 연인수로 16만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3만명의 선수는 21개 국가와 지역에서 왔는데 그중 성내 선수가 44.3%, 성외 선수가 55.7%를 차지했다. '길림시마라톤'은 경주로의 85%가 송화

강변에 설치되어 가장 아름다운 경주로를 이루고 있으며 동시에 량질의 대회 씨비스로 점점 더 많은 고수준의 선수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번 대회에 iaaf 골든 경기(国际田联牌路跑赛金标赛事) 세계 랭킹 100위권에 드는 선수들 외에 많은 iaaf 엘리트 경기(国际田联牌路跑赛精英牌赛事) 선수들이 참가했다. 국제육상경기연맹 관찰원도 길림시를 찾아 2024 '길림시마라톤' 성회를 지켜보았다.

8년의 축적과 5회의 발전으로 '길림시마라톤'은 이미 중국 북방의 매우 대표적이고 영향력 있는 정품 마라톤 성회로, 국내외 선수들이 앞다투어 찾아오는 대회로 되었다. 수많은 국내외 고수준 선수들의 참여로 올해 '길림시마라톤' 경쟁은 각별히 치열했다.

2024 길림시마라톤대회는 국제육상연맹으로부터 iaaf 엘리트 경기대회, 중국육상협회로부터 A1 류 대회로 인정받았다. / 정현관 차영국 기자 / 사진 길림일보

가요 친구야 우리 함께

김경우 : 작사
심상문 : 작곡
방순애 : 노래

작사 : 김경우 노래 : 방순애
작곡 : 심상문 촬영 : 리하 리정은